



“나의 20대 되돌아볼 수 있는 선물 같은 시간”

SBS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채송아 역 박은빈
“자극적인 시대 서정적 드라마...청춘들에 위로·공감 됐으면”

“20대에 했던 작품들을 마칠 때는 어떤 이유에서든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엔 눈물이 안 났어요. 모두에게 기쁜 웃음만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명성황후’(2001) 속 명성황후의 세자빈부터 ‘태왕사신기’ 속 김춘추의 연인 보라의 어린 시절까지, 늘 아역일 것만 같던 박은빈도 어느새 20대의 끝자락에 있다. ‘청춘시대’ 시리즈의 지원으로 청춘스타 반열에 오른 그는 최근 SBS TV ‘스토브리그’와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에 연달아 출연하며 더욱 성숙한 모습을 보여줬다.
야구 드라마에 이어 클래식 드라마라니, 대중성과는 거리가 먼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결국은 두 작품 모두 완결성과 흥행에도 아쉽지 않은 성적을 거뒀다.
최근 강남구 논현동에서 만난 박은빈(28)은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는 잔잔한 호수 위에 가끔 돌맹이를 던지는 느낌이라 스스로도 확신을 갖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고 했다.
“고민해보니 20대의 청춘 이야기 같지만, 그 시기를 지나온 사람들도 향수를 느낄 수 있고, 클래식은 예전부터 이어져 온 송고한 장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자극적인 게 많은 시대에 서정적이고 예쁜 이야기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시청률에 대한 기대는 접어두자고 생각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많이 좋아해 주셔서 감사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는 꾸준히 5%대(닐슨코리아) 시청률을 기록하며 치열한 월화극 시장에서 존재감을 입증했다.
박은빈은 이번에 바이올린에 대한 꿈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송아 역할을 통해 연기에 늘 진심이었다는 자신의 20대를 돌아봤다고도 털어놨다.
“우리나라 나이로 스물아홉, ‘아홉수’란 걸 느끼지 못할 정도로 금방 지나갔어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요. 송아가 계속 본인의 꿈과 미래에 대해 고민하잖아요. 송아로 살다 보니 ‘나의

20대는 어땠나’ 되돌아볼 수 있는, 선물 같은 시간이었죠. 뭐든 열심히 했던 저의 20대에는 스스로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어려운 시간도 있었어요. 송아처럼 실패해서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보완해서 이전보다 나은 모습을 스스로 발견했을 때... 그래서 더 단단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뿐만 아니라 ‘청춘기록’, ‘경우의 수’, ‘스타트업’까지 최근 청춘 드라마가 다시 인기를 얻고 있다.
박은빈은 이에 대해 “그만큼 지친 청춘이 많아서 아니겠느냐”며 “청춘극은 결국 위로와 공감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청춘을 지나온 사람들에게도 활기를 되찾아줄 수 있어야 하는데, 청춘 드라마 분위기 자체가 힐링이 된 게 아닐까”라고 했다.
그는 이번 작품 속 멜로 라인도 인상적이었다고 밝혔다.
“준영(김민재 분)과 송아가 각각 삼각라인이 있는데, 밸런스가 잘 맞는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준

영 쪽이 과거에 얽혀있는 것과 달리 송아는 미래를 향하는 인물이니, 빠르게 정리하고 준영에게 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제가 본격적인 멜로는 이번 작품이 처음이에요.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스물아홉의 송아가 딱 제게 왔죠. 멜로는 감정 라인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제 감정과 시청자 감정이 멀어지지 않게 꼭 붙잡아놓으려는 사명감으로 연기했습니다.”
그는 이어 “바이올린도 참 열심히 했다”고 웃으며 “처음에는 도레미파솔라시도도 제대로 몰랐지만 결국엔 배워 다 소화해냈다”고 자랑했다.
늘 차기작을 궁금하게 하는 박은빈의 다음 작품은 뭘까.
“요새는 판사부터 야구 구단 운영팀장까지 한 해 전문직을 맡게 되는데 그게 정말 큰 희열이에요. (웃음) 현실이라면 정말 유리천장이라 어려웠을 텐데... 한 역할을 하고 싶었던 만큼 충분히 하다 떠나보내 주는 배우라는 직업이 정말 좋습니다. 언젠가는 의사도 꼭 해보고 싶어요.”
박은빈은 마지막으로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시청자들에게는 “비가 올 때나 가을 냄새가 날 때 다시 한번 꺼내 보고 싶은 드라마가 됐으면 좋겠다”는 인사를 남겼다.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의 괴리감을 느끼는, 송아와 비슷한 고민을 했던 분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해요.” /연합뉴스



개그우먼 송은이 회사·일상 조명 MBC ‘다큐플렉스’ 오늘 방송

개그우먼 송은이가 세운 콘텐츠 제작사 ‘컨텐츠랩 비보’와 매니지먼트사 ‘미디어랩 시소’는 어떤 지 일반 회사들보다 좀 더 재밌고 엉뚱할 것 같다.
MBC TV는 22일 ‘다큐플렉스’에서 송은이의 회사와 임직원의 일상을 조명한다. 정통 다큐멘터리 문법에서 벗어나 시트콤과 다큐의 경계를 오가는 새로운 시도를 해보겠다는 게 기획 의도다.
송은이와 김숙은 5년 전 팟캐스트 ‘비밀보장’을 시작했다. 당시만 해도 연예인이 개인 방송을 하는 일은 드물었는데, 두 사람은 ‘우리가 그만두기 전에 없어지지 않을 방송국을 만들자’는 생각이었다고 한다.
이 방송은 결국 대히트를 했고, 방송사에서 역으로 라디오를 하자는 제안이 들어오는 수준에 이르렀다.
또 ‘밥블레스유’, ‘전지적 참견 시점’, ‘언니네 라디오’ 등 많은 프로그램이 ‘비밀보장’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됐다. 요즘 송은이와 김숙은 방송가에서 가장 바쁜 하루를 보낸다.
송은이는 그사이 ‘유명 걸그룹’도 하나 키워냈다. 신봉선, 안영미, 김신영과 함께 결성한 ‘셀럽파인브’는 어느덧 활동 2년을 맞았고, 히트곡도 쏠쏠하게 보유하고 있다. 송은이는 “안 가본 길을 가는데 대한 자부심이 있다”고 강조한다.
‘다큐플렉스-은이네 회사’ 1회는 22일 밤 10시 40분 방송. /연합뉴스



23일, 美 CBS ‘제임스 코든쇼’ 출연 정규 1집 ‘슈퍼 원’ 타이틀곡 ‘원’ 무대

보이그룹 슈퍼엠(사진)이 미국 인기 토크쇼에 출연해 최근 발매한 새 앨범 타이틀곡 무대를 펼친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슈퍼엠이 오는 23일(현지시간) CBS ‘더 레이트 레이트 쇼 위드 제임스 코든’(The Late Late Show with James Corden)에 출연한다고 21일 밝혔다.
‘코든쇼’는 유명 방송인인 코미디언 제임스 코든이 진행하는 심야 시간대 유명 토크쇼다.
슈퍼엠은 이날 정규 1집 ‘슈퍼 원’의 타이틀곡 ‘원’ 무대를 화상을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슈퍼 원’은 앞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발매 첫 주 2위를 기록한 앨범이다. 발매 2주 차에 20위에 올랐고, 3주 차인 이날 57위를 기록하며 상위권을 지켰다.
슈퍼엠은 SM이 유니버설뮤직그룹 산하 레이블인 캐피톨뮤직과 손잡고 북미 시장에 선보인 그룹으로, 꾸준히 현지 활동을 이어왔다.
정규앨범 발매 전후로 ABC ‘굿모닝 아메리카’, NBC ‘엘렌 드제너러스 쇼’를 통해 미국 시청자와 만났다. /연합뉴스



도서출판 상상인

NEXT

상상인을 찾습니다.

도서출판 상상인에서는 우수한 시집원고를 모집합니다.

도서출판 '상상인'은 재능있는 시인들의 작품집 발간을 위해 우수한 시집원고를 수시 공모합니다. 접수받은 원고는 매분기 엄정한 심의를 거쳐 작품집으로 출간됩니다.

107인의 신춘문에 출신들의 상상(앤솔로지)를 시작으로 2020년 1월부터 지금까지 총 9권을 발간하였으며 발간 예정인 시집들도 다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집뿐만 아니라 평론집, 시조집, 동시집 등 다양한 작품집을 발간해 나갈 예정입니다.

더불어 도서출판 상상인은 문학사업의 일환으로 상상인 창작지원금 제도를 마련해 우수한 시집을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 원고 보내실 곳 E-mail : ssaangin@hanmail.net
- 모집원고 : 시집 한 권 분량(시 50편 이상)
- 출간혜택 : 선인세 일백만원, 해설비 지급 등을 통하여 시집 제작. (필요시 저자는 정가의 70%에 구입)
- 문 의 : 010-7371-1871

지금까지 출간된
상상인 시선

- 상상 (앤솔로지)
- 봄음이 제 몸을 뒀다 김유석
- 오랜지 나무를 해단으로 칠게요 최지하
- 새, 블랙박스 양수덕
- 방울을 울리며 낙타가 온다 이선애
- 그녀의 외로움은 B형 - 신규반 중독자 마경덕
- 사과상자의 이설 전다형
- 당신에게는 이르지 못했다 권혁재
- 메타자본세라이어 시선 강대선

- * 7월 발간 예정
김남수 시집 - 둥근 것을 보면 아프다
- * 8월 발간 예정
정영주 시집